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시기 학생청소년들을 아버이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 준비시키신 불멸의 업적

리 명 철

준엄한 전화의 나날 조국의 품은 곧 아버지장군님의 품이며 위대한 수령님은 개인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수령이시라는 확고한 혁명적수령관을 간직하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학생청소년들을 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 준비시키는데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학생청소년들은 우리 조국의 미래이며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혁명의 간고성과 장기성으로 하여 당과 혁명대오에서 끊임없는 세대교체가 일어나고있는 엄연한 현실은 학생청소년들을 전쟁의 불길속에서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로 훌륭히 준비시킬것을 요구하고있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학생청소년들을 아버지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 준비시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를 조직운영하도록 하시여 학생청소년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나 어린 혁명가들로 준비시키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김일성장군략전연구소조를 뒀고 장군님께서 걸으시는 포연자욱한 전선길을 생각하면서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모시였습니다.》(《김정일전집》 제1권 21페이지)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으로 무장하는것은 학생청소년들을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의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나서는 가장 선차적인 요구이다. 특히 조국해방전쟁의 엄혹한 시련은 학생청소년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것을 중요하게 제

기하고있었다.

당시 《김일성장군의 략전》학습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학생청소년들을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적으로 단련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자로 교양육성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와 당시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의 생활실태, 자신께서 최고사령부에서 보고 느끼신 생활체험에 기초하시여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시기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를 조직운영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41(1952)년 12월 만경대혁명학원에 《김일성장군의 략전》을 비롯한 수많은 도서들을 가지고 나오시여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시면서 략전에 수록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알기 쉽게 해설해주시는 한편 학원소년단지도원을 찾아가시여 략전연구소조를 결성할것을 제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42(1953)년 2월 6일 략전연구소조를 내오기 위한 학생들의 예비모임을 열고 소조결성의 필요성과 소조의 사명, 기본임무와 활동내용을 밝혀주시였으며 2월 10일 학급소년단원들의 모임에서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결성을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김일성장군의 략전연구소조의 목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학원학생들이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따라배우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수령님께 충직한 아들딸로, 선군혁명위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하는

데 있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데 앞장서야 하겠다고 말씀
하시였다.

락전연구소조에는 다른 학과목소조들과
는 달리 모든 소년단원들이 다 망라되어
《김일성장군의 락전》을 기본교재로 삼고
주에 한번씩 운영하였으며 기본형식은 독
보와 해설, 연구발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무으신 김일성장군의
락전연구소조는 우리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는 첫 혁명력사연구소
조였으며 이때로부터 수령님의 혁명력사
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사업
이 학생소년들속에서 시작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김일성장군의 락
전연구소조활동을 적극화하시면서 소조를
확대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발표모임에 참가
하시여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시절이야기
들과 항일무장투쟁시기 전투담들에 대하
여 생동하게 들려주시였으며 벽보에 락전
을 읽은 학생들의 감상문과 소조활동경험
을 널리 소개하고 소조활동을 더욱 적극
적으로 벌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이야기모임,
수령님의 로작해설모임, 락전연구토론회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락전학습
을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락전연구소조의
소년단원들은 수령님의 위대성을 더욱 깊
이 체득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학원의 모든 학급
들에 락전연구소조를 내오도록 하시고 학
원적인 락전해설모임과 토론을 진행하도
록 하시였으며 주체42(1953)년 3월 모든
학원학생들이 락전연구소조원이 될 충정의 결
의모임을 조직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41돐을 맞으며 학
원의 모든 학급들에 락전연구소조가 조직
되게 되였다.

김일성장군의 락전연구소조는 점차 전
국의 많은 학교들에 확대되어갔다. 평양시
안의 제10중학교, 제3녀자중학교, 황해남
도 안악군 제1녀자중학교, 강원도 안변군
배화녀자중학교 등 여러 학교에 연구소조
가 조직되어 활발히 운영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조
직하신 김일성장군의 락전연구소조활동
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학생청소년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한 나 어린 혁명가들
로 튼튼히 준비해나가게 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학생청소년들을
어버이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 준비시키
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전시환경에 맞게 학
생들속에서 학습전투를 힘있게 벌려 혁명
과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는 산지
식을 소유하도록 하신것이다.

학습은 학생소년들의 기본임무이다. 학
생들에게 학습을 잘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임무는 없다.

당시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주신 붉
은 편지를 받들고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
이 미제침략자들의 《신공세》를 짓부시기
위한 결사전을 벌리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
처하여 학생소년들속에서 최우등의 영예
를 떨치기 위한 학습전투를 힘있게 벌려
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전선에 나가서 미국놈들과 싸워야만 원쑤
를 갚는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학생인 우
리는 5점의 총창으로 조국과 부모의 원쑤
를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학생소년들속에서
최우등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학습전투
를 벌려나갈 목적으로 주체41(1952)년 12
월 만경대혁명학원 소년단열성자들의 하
루사업총화모임을 지도하시면서 《5점의 총

창으로 조국과 부모의 원수를 갚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내놓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42(1953)년 1월을 비롯한 여러 기회에 분단사업계획서의 중심을 학습을 잘하는데 두도록 하시고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학생소년들은 구호《5점의 총창으로 조국과 부모의 원수를 갚자!》를 높이 들고 분단, 학급단위로 분산수업을 하는 조건에 맞게 학습조와 호조를 조직하고 학습토론과 학습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최우등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학습전투에 떨쳐나서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학생청소년들이 주체적인 학습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학습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학생들을 불려일으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학생소년들이 높은 목표밑에 학습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체42(1953)년 1월 만경대혁명학원 제3분단총회에서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소년단원들에게 공부하는 목적이 자기의 이름이나 떨치고 돈과 재물을 모으자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일하려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에는 모든 학생들이 쓸모있는 산지식을 더 많이 배워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한 아들딸이 되어 조선을 더욱 빛내어나가자는 뜻이 담겨져있다고 밝혀주시었다. 계속하시여 우리는 언제나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 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소년단원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학생청소년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학습을 잘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구호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를 높이 받들고 학습전투를 힘있게 벌렸다.

소년단조직들은 학생청소년들속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해 45분수업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사업과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개인별, 반(분조)과 반, 학급과 학급간 학습경쟁을 벌렸다.

소년단조직들은 부락단위 또는 반별로 학습실을 꾸려놓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였으며 학습에서 모범적인 최우등, 우등생들의 긍정적모범을 벽보와 속보를 통해 널리 소개하고 경험교환회를 수시로 조직하여 학생청소년들의 학습열의를 북돋아주었을뿐아니라 전시환경에서도 분단, 초급단체별로 학과연구소조를 무어 실험과 학과토론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많은 학교들에서 실험실과 실습지들을 꾸려놓고 배운 지식을 공고히 다져나갔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전시조건에서도 학생청소년들은 학습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학습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선을 빛내이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쓸모있는 산지식을 훌륭히 갖추어나가게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학생청소년들을 아버지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 준비시키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소년단조직의 역할을 높여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며 학생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단련시키도록 하신것이다.

소년단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학생청소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고 소년단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학생소년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최대의 민족적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42(1953)년 4월 15일 만경대혁명학원 예술공연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명절들 가운데서 4월 15일이 가장 뜻깊고 경사스러운 명절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이날에 탄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빼앗겼던 조국을 다시 찾아주시고 그 모든 명절들을 마련해주시였기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있는 행복도, 앞으로 우리에게 안겨질 모든 영광도 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있는것이다, 때문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은 우리에게 제일 기쁜 날이고 첫째가는 명절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학생소년들이 누리는 오늘의 행복과 찬란한 미래가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모든 학생소년들이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며 충정을 다하는 참된 아들딸이 되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을 최대의 명절로 경축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체42(1953)년 3월 만경대혁명학원 소년단열성자모임과 학원소년단위원회들에서 모든 학생소년들이 수령님의 탄생 41돛을 맞으며 결의모임, 예술공연, 체육대회를 성대히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그리고 단막극 《패전장군의 말로》를 무대에 올릴데 대하여 밝히시고 몸소 며칠밤을 지새우시며 연극대본을 쓰시고 주역을 수행하시는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학생소년들이 소

년단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소년단원들은 소년단조직생활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조직성과 규률성을 키우며 혁명적으로 단련하게 된다.

특히 소년단열성자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이 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여러 기회에 소년단열성자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소년단조직생활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조직생활을 잘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소년단열성자들은 학습과 소년단조직생활에서 모범이 되고 소년단조직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핵심력량으로 되였다. 그리고 소년단원들속에서는 조직관념이 높아지고 그들의 생활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서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소년단조직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은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소년단원들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자라나게 되였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온 세상에 떨쳐나가야 할것이다.